

# 수도권 기업의 부산지역 이전 및 투자에 관한 의견 조사

2026. 3

# 〈조사개요〉

## 1. 조사 명

- 수도권 기업의 부산지역 이전 및 투자에 관한 의견 조사

## 2. 조사 목적

- 부산은 남부권 산업벨트의 중심 도시로서 향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만큼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수도권 기업의 관점에서 부산의 투자 매력도와 투자 유치 조건 등을 진단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강화의 기초로 활용코자 함

## 3. 조사 대상

-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수도권 소재 기업 900개 사 (조사 응답 301개 사)

## 4.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설문 조사
- 조사표 회수 용역: 리서치한국

## 5. 조사 내용

- 수도권 기업의 신규 투자 시 부산에 대한 인식
- 지방 투자 시 입지선정 요소와 부산의 수준
- 부산지역 투자 시 기대와 우려
- 부산지역 투자 인센티브 관련 의견 및 기타

※ 보고서 내 통계치는 전수조사가 아닌 조사 응답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됨

※ 지방 투자의 개념에는 지방으로의 본사소재지 이전을 포함

# 수도권 기업의 신규 투자 시 부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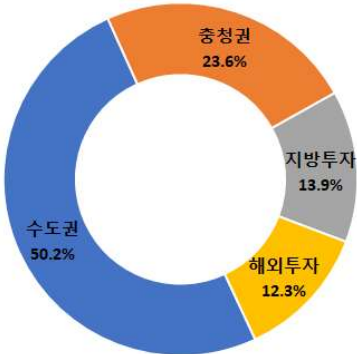
- 수도권 기업의 신규 투자 검토 지역으로 수도권 재투자 비중이 50.2%로 가장 높음
- 이어 충청권 23.6%, 지방투자 13.9%, 해외투자 12.3% 등의 순
- 지방투자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이 47.5%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1. 수도권 기업의 신규 투자 시 최우선 검토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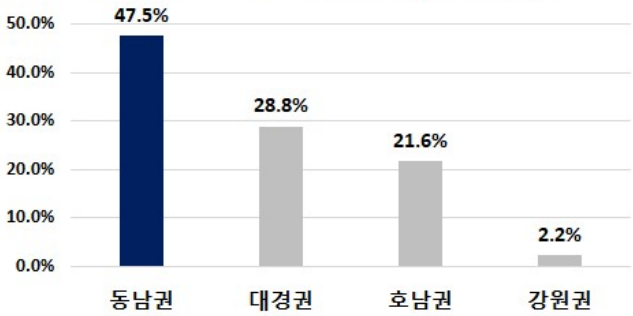
○ 수도권 기업의 신규 투자 시 절반 이상이 수도권 재투자 최우선 검토 지역  
 이어 충청권 23.6%, 지방투자 13.9%, 해외투자 12.3% 등의 순

- 수도권 기업이 향후 신규 투자 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지역은 기존 소재지인 수도권 재투자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수도권 확장의 영향으로 경기도에 인접한 청주, 천안, 아산 등 충청권 북부 지역에 대한 최우선 검토 비중이 23.6%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지방 투자 검토 비중은 13.9%에 그침

신규 투자 시 최우선 검토 지역



지방투자 우선 검토 지역(충청제외)



○ 지방 투자 시 최우선 검토 지역은 부산이 포함된 동남권 47.5%

- 수도권 기업이 지방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지역은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47.5%)으로 나타나, 지방 투자에선 부산의 투자 검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이어 대경권 28.8%, 호남권 21.6%, 강원권 2.2% 순으로 나타남

## II 지방 투자 시 입지 선정 요소와 부산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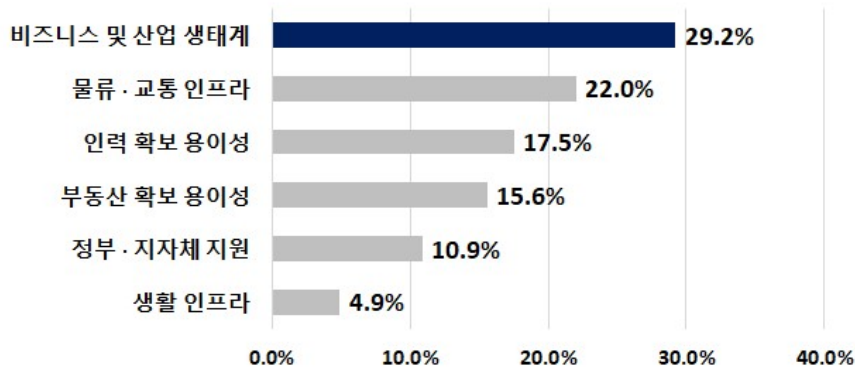
-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 시 최우선 고려 요소는 ‘비즈니스 및 산업 생태계’
- 입지 선정 요소는 대체로 수도권과 부산이 대등한 수준이며 물류·교통 인프라는 수도권보다 우위, 비즈니스 및 산업 생태계는 수도권 대비 다소 열위

### 1. 지방 투자 시 입지 선정 요소

○ 수도권 기업이 지방 투자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선정 요소는 ‘비즈니스 및 산업 생태계’ 29.2%

- 이어 물류·교통 인프라 22.0%, 인력 확보 용이성 17.5%, 부동산 확보 용이성 15.6%, 정부·지자체 지원 10.9%, 생활 인프라 4.9%, 산업 클러스터 및 생태계 4.5% 등의 순으로 확인됨

지방 투자 시 입지 선정 요소



- 비즈니스 및 산업 생태계를 가장 중시한다는 점은 결국 기업의 기존 밸류체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중심 밸류체인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경향과 일치되는 부분
- 물류와 교통, 인력 확보, 부동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만큼 향후 기업 유치 정책에도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정부·지자체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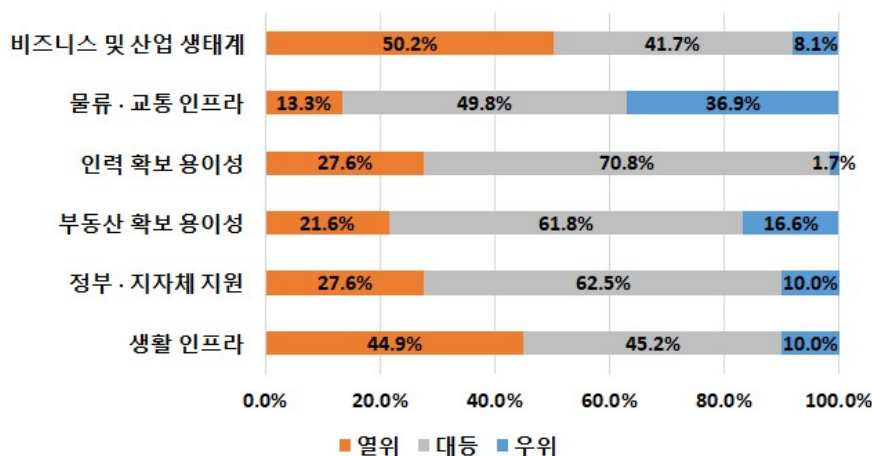
- 지방 투자 인센티브는 신규 투자 입지 선정 요소에서 우선순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 결정이 단순한 정부 지원만으로 촉발되기보다는, 공급망·시장 접근성과 같은 구조적 요소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지방 투자 인센티브는 지역 간 경쟁 우위 확보, 투자 촉진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2. 입지 선정 요소별 수도권 대비 부산의 수준

○ **세부 입지 선정 요소에선 부산의 물류·교통 인프라는 수도권보다 크게 우위, 그 외 요소들 역시 수도권과 대등한 편**

- 부산의 입지 요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물류·교통 인프라’ 등 일부 요소에서는 수도권보다 오히려 부산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확인됨

입지 선정 요소별 수도권 대비 부산의 수준



- 이는 부산의 입지 경쟁력이 물류, 비즈니스, 인력, 운영비용 등에서 다른 지방보다 높은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산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지방 거점 도시”이자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입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됨

- 다만 ‘비즈니스 및 산업 생태계’와 ‘생활 인프라’ 등에서 열위하다는 인식이 비중이 높아 수도권과의 현실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요처·협력업체 접근성, 산업 간 연계 구조, 클러스터 밀집도 등 구조적 한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동시에 확인됨

### 3. 입지 선정 요소별 수도권 대비 세부 비교

#### ○ 비즈니스 및 산업 생태계 [열위 50.2% - 대등 41.7% - 우위 8.1%]

- 대체로 수도권 기업이 기존 소재지 중심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및 동남권 비즈니스 생태계 부족이란 현실적 한계와 상대적으로 열위한 산업 클러스터화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
- 수요처와 협력 업체와의 낮은 접근성, 클러스터화 부족은 결국 생산, R&D, 조달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산이 공급망 연계 능력 강화와 산업 기반 확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함

#### ○ 물류·교통 인프라 [열위 13.3% - 대등 49.8% - 우위 36.9%]

- 전통적인 물류도시의 이미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특히 항만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물류·운송 비용 절감 등의 실질적 이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한편 향후 신공항, 광역 철도 구축으로 부산의 물류·교통 인프라 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복합 물류를 통한 물류 경쟁력 고도화를 부각시킬 수 있는 투자 유치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 인력확보 용이성 [열위 27.6% - 대등 70.8% - 우위 1.7%]

- 인력 확보 부분은 대체로 수도권과 부산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인식 비중이 높지만, 이와 동시에 열위하다는 인식의 비중도 다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직군에 따라 인력확보의 용이성이 달라지기 때문임

- 특히 수도권 대비 연구·기능직 등 고급 인력에서 인재 풀이 작고 지역 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상황에서 양질의 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

○ **부동산 확보 용이성 [열위 21.6% - 대등 61.8% - 우위 16.6%]**

- 수도권 대비 부동산 비용 측면에서 부산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조업과 물류업이 필요한 대규모 부지 확보에서 부산의 입지적 한계가 존재하고 산업단지 노후화, 첨단 기업 수요에 맞춘 고급 오피스 시설 부족 등의 제약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정부·지자체 지원 [열위 27.6% - 대등 62.5% - 우위 10.0%]**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 인센티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보다 정책적 지원 강도가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여전히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체감 높은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
- 수도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만의 기업 유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

○ **생활인프라 [열위 44.9% - 대등 45.1% - 우위 10.0%]**

- 수도권 기업들이 부산의 정주 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수도권 보다 열악한 의료·교육·문화 인프라가 수도권 기업의 인식 기저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제조업 생산시설이 밀집된 강서구 일원은 부산 내에서도 병원, 교육,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서부산 발전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III 부산지역 투자 시 기대와 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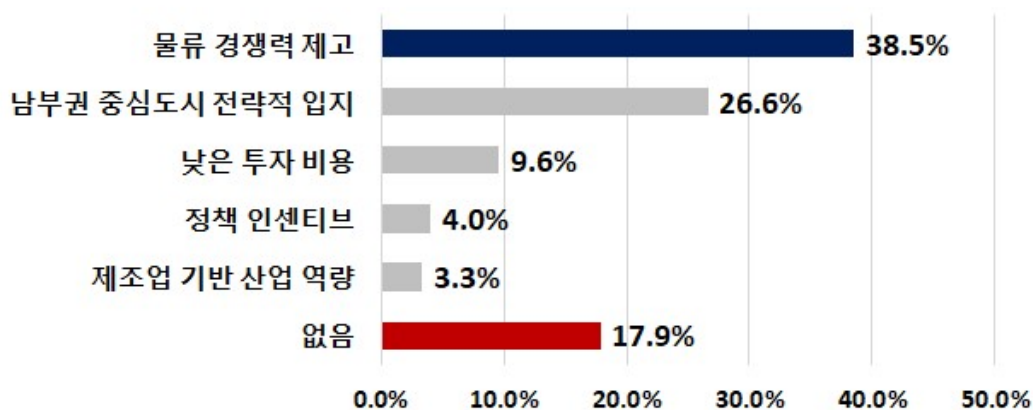
- 부산지역 투자의 가장 큰 기대 요소는 물류 경쟁력 제고와 남부권 중심도시의 전략적 입지 강점 확보
- 애로사항은 기존 직원 불만 및 이탈, 거래선 단절, 사업장 정리 등 복합적

#### 1. 부산지역 투자에 대한 기대 요소

○ 부산지역 투자 시 가장 기대되는 이점은 ‘물류 경쟁력 확보’ 38.5% 그리고 ‘남부권 중심도시 전략적 입지 확보’ 26.6%

- 부산항을 활용한 물류 경쟁력을 가장 큰 기대 요소로 꼽은 가운데 남부권 중심도시의 전략적 입지 21.9%,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비용 9.6%, 동남권 수요시장 접근성 4.7%, 정책 인센티브 4.0%, 제조업 기반 산업 역량 3.3% 등의 순

#### 부산지역 투자 시 기대 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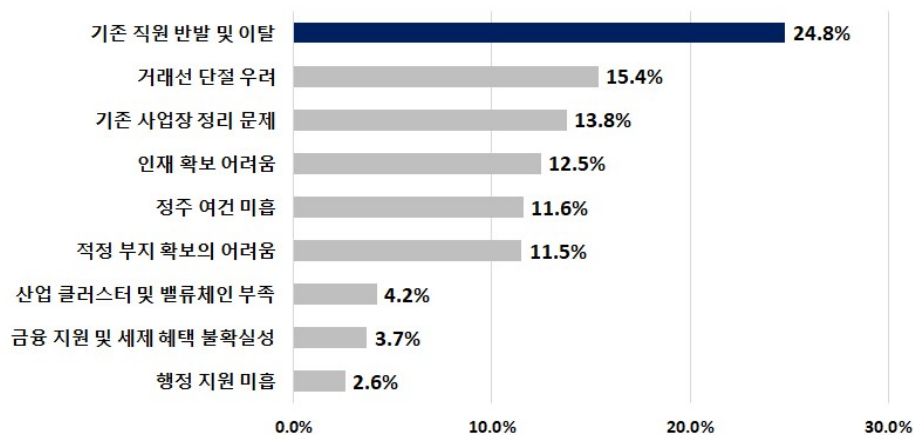
- 부산지역 투자의 기대 이점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남부권 중심도시 전략적 입지 확보’는 수도권 기업 입장에서 부산 투자가 동남권 광역 경제권 내 공급망 거점으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 부산지역 투자에 대한 애로사항

### ○ 부산지역 투자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기존 직원들의 반발 및 이탈 가능성’ 24.8%로 가장 높음

- 이어 거래선 단절 우려 15.4%, 기존 사업장 정리 문제 13.8%, 인재 확보 어려움 12.5%, 정주 여건 미흡 11.6%, 적정 부지 확보의 어려움 11.5%, 산업 클러스터 및 밸류체인 부족 4.2%,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불확실성 3.7%, 행정 지원 미흡 2.7% 등의 순

부산지역 투자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 ○ 부산지역 투자에 따른 인적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 부산으로의 투자·이전 과정에서 기존 인력의 이동이 불가피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인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특히 앞서 입지 선정 요소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듯, 정주 여건은 부산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기존 직원의 반발·이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수준에 준하는 정주 인프라·생활 편의·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

## IV 부산지역 투자 인센티브 관련 의견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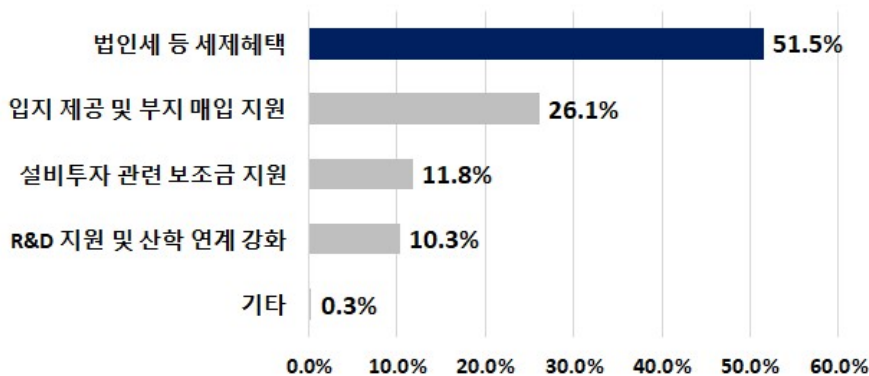
- 가장 선호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세제혜택과 입지 및 부지 관련 지원
- 가장 실효성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제혜택으로는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화 그리고 신규 투자 관련 기자재 설비 수입관 부가세 인센티브도 효과적 유인책

### 1. 가장 선호하는 투자 인센티브

○ 수도권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 51.5%

- 이어 입지 제공 및 부지 매입 지원 26.1%, 설비투자 관련 보조금 지원 11.8%, R&D 지원 및 산학 연계 강화 10.3%, 기타 0.3% 등의 순

지방 투자 시 선호하는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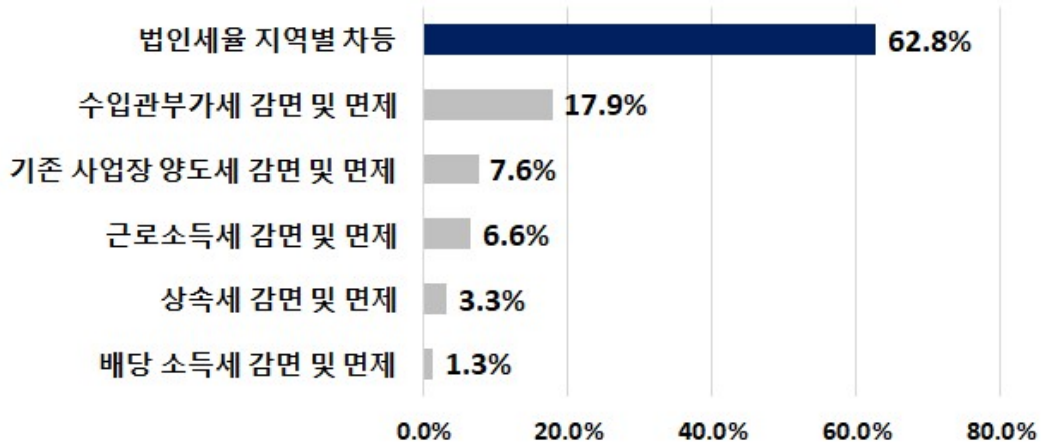
- 수도권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꼽았으며, 특히 제조업은 공장·창고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 요구도 높게 나타남

### 2. 부산 투자에 가장 효과적인 세제 혜택

○ 현재 시행 중인 혜택은 아니지만 향후 도입된다면 가장 실효성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세제 혜택은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62.8%

- 이어 수입 관·부가세 감면 및 면제 17.9%, 기존 사업장 양도세 감면 및 면제 7.6%, 근로소득세 감면 및 면제 6.6%, 상속세 감면 및 면제 3.3%, 배당 소득세 감면 및 면제 1.3% 등의 순

## 가장 실효성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세제혜택



### ○ 부산이 수도권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면 투자 유치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선 투자유치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법인세율의 차등화가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 이미 스위스,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지역별 법인세율을 차등화 함으로써 균형 발전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도입 논의를 준비해야 할 정책적 근거가 충분함

### ○ 수입 관부가세 감면 역시 지방 투자 촉진을 기대할 주요 세제 혜택으로 확인

- 현행 수입 관·부가세 감면은 연구개발을 위한 기자재 수입, 외국인 투자 기업 자본재 수입, FTZ 반입 등 특별한 목적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음
- 지방 투자에서 발생하는 기자재·설비 등에 대한 수입 관부가세 부담 완화가 실효성이 높을 것이란 의견이 확인된 만큼 선제적인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새로운 기업 유치 방안으로 활용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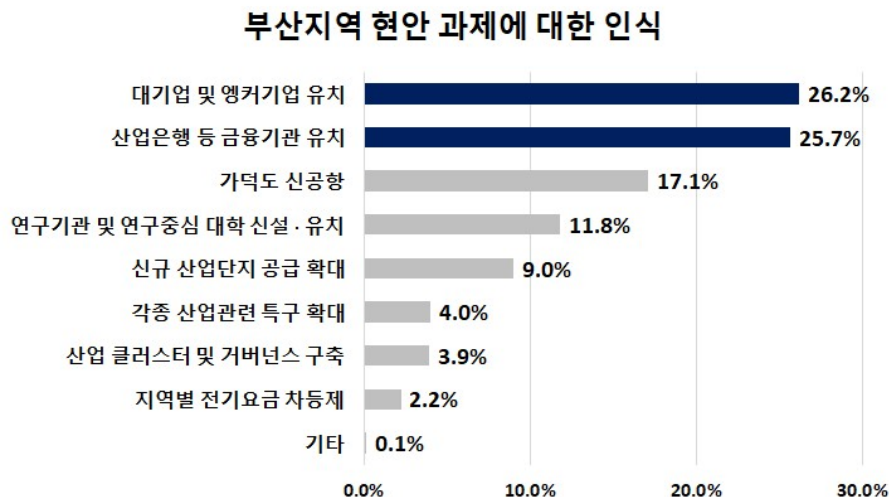
### ○ 수도권 소재 기존 사업장 처분 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면제 필요

- 수도권 기업이 기존 사업장 매각 후 지방 투자를 희망하더라도 과도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지방 투자 시 기존 자산 처분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신규 투자 여력 확보로 적극적인 지방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3. 부산지역 현안 과제에 대한 인식

### ○ 현재 부산이 추진 중인 현안 과제 중 수도권 기업의 투자 의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제는 ‘대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 26.2%

- 이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유치 25.7%, 가덕도 신공항 17.1%, 연구 기관 및 연구중심 대학 신설·유치 11.8%, 신규 산업단지 공급 확대 9.0%, 각종 산업 관련 특구 확대 4.0%, 산업 클러스터 및 거버넌스 구축 3.9%,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2.2%, 기타 0.1% 등의 순



### ○ 지역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업·기관 유치 필요

- 대부분의 수도권 기업이 부산의 투자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대기업 등 앵커기업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 금융기관 같은 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업·기관이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